

제1장 교육사 개관

1. 조선시대의 서당 교육

1) 서당 교육

서당은 사립초등교육기관의 성격으로 글방이라고도 일러왔다. 서당은 향리에 은거한 양반 지식인들이 운영하면서 당시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방 문화 창달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도 많은 성과를 올려 전국 방방곡곡에 대소 서당이 대중 교육 시설로 널리 보급되었다.

서당의 교육은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한문의 독해력을 이해시키고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 등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교과목은 주로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痛鑑), 소학(小學) 등 이었으며, 능력에 따라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종문(唐宗文), 춘추(春秋), 예기(禮記), 근사록(近思錄) 등도 배웠다. 수업 방법은 천자문으로 부터 단자의 음과 훈을 배우고 단자를 붙여서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등의 구절을 익히며 문장의 문의를 가르쳐 스스로 읽고 그 뜻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한편 습자를 통하여 해서, 초서 등을 배웠으며 제술(製述)을 통하여 칠언, 오언절구 등을 습작하였다.

서당은 기본 자산이 있어야 하거나 허가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나 뜻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었으며, 직원은 보통 훈장과 접장이 있었다. 입학 연령은 대략 7~8세에서 15~16세의 아동이 중심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0여 세의 만학자도 있어 연령 제한은 없었고 양반 또는 향리의 자제가 중심이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던 시기에도 서당에서 신지식을 가르치며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더러 있었으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서당은 차츰 탄압과 간섭을 받게 되고 또한 근대식 학교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서당의 종류에는 훈장이 자신의 생계 혹은 교육 취미로 세운 훈장자영서당과, 마을에서 가세가 넉넉하여 자제와 친척 또는 이웃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훈장의 경비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유지독영서당, 뜻있는 유지 몇 사람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조합원 자제를

교육시킨 유지조합서당, 마을 전체가 조합하여 교육을 한 촌조합서당(村組合書堂) 등이 있었다.

서당은 한·일합방 이후 사립학교를 없애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려는 식민교육정책에 반발하여 민족교육의 일환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2) 한말 일제시대 서당 현황

(1) 동(洞) 지역

보령 지방에도 각 마을마다 훈장 중심의 서당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서당은 다음과 같다.

① 화현정사(花峴精舍)

화산동 화현마을에 위치하였고, 한양조씨 문중에서 설치하여 100여 년간 유지되었으며 진사 조일원(趙一元)이 갑오경장 이후 한성에서 귀향하여 교육에 전념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 신창섭, 최익, 황오현, 신동우, 조충원 등 많은 지방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 서당은 특히 인근 화암서원과 보령향교와도 근접하여 서로의 학문교류가 잦았다.

② 녹문서당

사가(四可) 유호근(柳浩根) 선생이 초기에는 인근 청라 지방에서 강학하다가 후에는 내항동 녹문에서 서당을 운영하여 종문 후예들과 일반자제들의 교육에 힘썼다. 이 영향으로 같은 문중의 유준근은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길을 넓혔으며, 후에는 일제에 항거하여 항일운동에 공을 세운 애국지사가 되게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최익현, 김복한, 백관형 등과 서로 통하였고, 이웃 청양, 화성의 독립운동가이며 한학자인 임한주(林翰周), 안병찬(安炳贊) 등과의 학문 교류가 잦았고, 교분이 두터웠으며, 대천 지방은 물론 호서 전역에 명성이 높았으니, 제자로는 최익, 김병현, 민재국, 이흥직, 이흥규 등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

③ 흑포서당

현포동 흑포 마을에 담양전씨 문중에서 개설한 서당으로 최초에 전용직(田溶植), 전봉수(田鳳秀), 전용국(田溶國)씨 맥을 중심으로 운영됐고, 훈장으로는 전달수(田達秀), 이신직 선생 등을 초빙하여 문중 자제들을 가르쳤으며, 이 서당이 연유되어 현 청룡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④ 명암서당

홍덕동 명암마을에 개설되었으며 그 당시 한학자 안기정(安起亭) 선생이 20여 년간 운영하여 이웃 자제들을 가르쳤다.

⑤ 중보서당

죽정동 중보마을에 설치되었으며 도유사를 지낸 바 있는 이계승(李啓昇) 선생이 운영하여 일반 이웃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⑥ 기타 동대동 느랏 서당이 당시 심인택 선생 댁에서, 죽정동 지장굴 서당이 이종완(李鍾浣) 선생에 의해서 이웃 자제들을 위하여 운영된 바 있다.

(2) 읍면(邑面) 지역

서 당 명	교사명(훈장)	학 생 수	소 재 지	
사천서당	조선행	40-50	주포면	봉당리
가졸서당	강선생	45-50		연지리 786
관산서당	최태경,이윤구	130-140		관산리 59
삿갓집	(미상)	7-8		마강리
생저골서당	문호순	8-10		보령리 134
담번덕서당	박창화	16		은포 2리
거어리서당	이종순	14		주교 2리
효명서당	최순혁	12	오천면	효자도리
교성서당	이규백	15		교성리
오포서당	이희완	10		오포리
갈현서당	최호창	17		갈현리
소성서당	최문준	15		소성리
대궁서당	최성석	45	천북면	하만 2리
염성서당	정진성	10		학성 3리
학성서당	김찬희	7		학성 4리
사정서당	김영일	15		사호 2리
늘문서당	최영환	17		사호 2리
장은서당	최응인	14		장은 1리
심박서당	정인명	8		낙동 2리
숫골서당	윤선순	20		신덕 2리
고잠서당	김상범	19-25	침소면	신송리 428
능동서당	임창주	15-20		재정리 40
재정서당	김사구	20-25		재정리 126
송덕서당	이상두	20-25		진죽리 865
육점서당	전용욱	15-20		진죽리 743
음지서당	최재익	20-25		성연리 43

624 • 교육사 개관

논향서당	이광노	10-15		정전리 520
장자서당	박동진	20-25		장곡리 415
상중서당	오익교	20	청라면	라원 2리
둔대서당	민재국	15		소양 2리
당내서당	노정구	15		내현 1리
괘발서당	이강직, 김익석	15		의평 1리
정동서당	유호근, 홍재후	20		옥계 1리
성우당서당	김세열	20		황용 1리
장전서당	신현각, 김노동	20		장현 1리
장전서당	김주연, 이종안	20		장현 1리
신산서당	복원규	15		신산리
홍문서당	차 씨	20		신흥리 매내
관동서당	미 상	30	남포면	봉덕리 관동
신명강사	김두환, 한증석	15-25		월전리 대자울
삼현서당	이재훈	5		삼현리
달산서당	이상학, 황규수	10-20		달산리
신평서당	미 상	15		제석리
용운당서당	차동일	10	웅천면	평리
돈암서당	이응복	10		평2리
치훈서당	임치훈	12		평2리
위뜸서당	미상	10		성동 2리
아래뜸서당	김박제	10		성동 3리
음지서당	김철수	10		두룡1리(음지뜸)
장마서당	백낙정	7		구룡 2리
마차울서당	백승균	6		구룡 2리
소황서당	최명규	10		소황리
명박골서당	이 씨	15		황교리
봉우당서당	김상희	26		죽청 1리
길재당서당	김길재	15		노천 1리
우암서당	김 씨	20		대창 2리
용암서당	김원덕	10		금암리 252
심계골서당	김완순	13		금암리 301
대곡서당	임현용	15		야룡리 야관
주산정사	임설교	90		야룡리 306
용강서당	김상모	10	야룡리 신기촌	
야룡서당	박승학	15	야룡리 81	
수랑골서당	이사명	10	야룡리 585	
송산서당	이사열	8	야룡리 676	
옥반동서당	이사용	10	주야리 328	
주렴산서당	박성하	13	주야리 419	
방죽골서당	이병두	13	증산리 736	
염전서당	신원식	15	창암리 173	

동오서당	이종만	10		동오리 59
선돌서당	이상혹	8		동오리 241
오상서당	이종식	7		동오리 173
오상태서당	김종열	7		동오리 118
오정승서당	이성구	12		동오리 159
송림서당	윤 급	13		증산리 370
샘실서당	임시재	10		삼곡리 187
황률서당	임동빈	12		황율리 297
장동서당	김시원	10		주야리 장동
평라서당	윤영원	10		미산면
내평서당	김영배	7	내평리	
풍산서당	김원제	10	풍산리	
풍계서당	권형욱	9	풍계 2리	
(미상)서당	조규성	10	풍계 2리	
용수서당	임행호	8	용수 3리	
동강서당	조익순	90	삼계리 43	

보령군 문화공보실 통계자료(1989년 조사)

2. 개화기의 보령교육

1) 개화기 교육의 특색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전통 관념에 의한 독선적 고립정책을 취해왔던 조선이 그 시야를 국제무대로 전환시켜 근대적 국가로 개국을 하게 되자, 조선사회를 지배하여왔던 배타적 주자학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나타나게 되고 서양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수용함으로써 교육사적으로는 일대 변혁이 나타나게 되었다.

1883년(고종 20년) 덕원 군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화파 관료인 덕원 부사 정현석(鄭顯奭)이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元山學舍)를 설립하여 근대 학술과 무술을 가르쳤고, 같은 해 외아문 내에 동문학(同文學)이라는 영어 교습기관도 세웠다. 1886년(고종 23년)에는 육영공원을 세워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상류층 자제들에게 영어, 수학, 지리 등을 가르쳤으나, 입학했던 특권층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1894년 폐원되었다.

이어서 선교사들에 의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며, 1908년경에는 근대식 학교가 36개교, 1909년까지는 54개교로 증가되었다. 중학교 과정

으로도 경서, 사기,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공작, 성경 등의 교과목 외에 훈련과 운동 등 과외활동이 있어 교과가 최근대식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선교사 계통의 학교는 그 설립 목적이 기독교 사상의 보급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서양 근대학문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일본의 압박에 대한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구실을 하였다. 이 때 세워진 사립학교의 특색을 보면 역사적, 지역적 신문화의 접촉이 비교적 용이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고, 여학교도 상당히 많아, 소외되었던 여성의 교육 향상을 이루어 개화를 더욱 촉진하고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극복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일부 선각 지식인들은 교육 구국운동으로 지방별 학회와 교육단체 등을 조직하여 서우학회(西友學會), 태극학회, 호남학회, 여자교육회, 홍사단 등이 있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조선의 교육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예조를 폐지하고 학무아문이 신설되어 교육을 주관하였고, 1895년 2월에는 동 아문에서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調書)를 선포하여 국정쇄신을 위한 영재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소학교, 사범학교를 세워 반상의 구별 없는 인재를 양성할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설립된 소학교 수는 수도에 10개교, 지방에 관찰부(觀察府) 소학교를 비롯하여 50여 개교에 달하였으며, 이 당시의 교육기관은 개화기로서 외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고등교육보다 전문교육이나 실업교육에 치중했다.

2) 개화기 보령교육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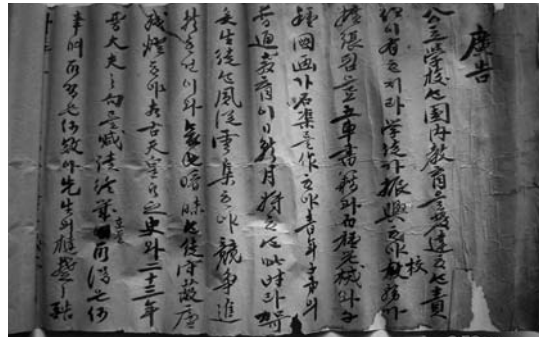
개화기 초 보령교육은 여전히 군현에 설치된 향교나 서원교육에 의존하고 향리의 서당교육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사상이 고조되면서 한성을 중심으로 경향각지에 신식 사학이 설립됨에 따라 보령에도 근대적 의미의 민족계 사립학교가 세워져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때, 보령에는 남포의 옥산학당, 주포의 보령학당, 주산의 옥성학당 등이 설립되었는데, 후에 사립 남포학교, 사립 보령학교, 사립 옥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교육 사조의 흡수에 진력하였다.

이후 1909년 9월 13일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인가되었고, 한일합병 후 조선 교육령이 1911년 8월에 공포되자 한국 아동교육기관으로 공립보통학교가 경향각지에 많이 설립되었는데, 사립 보령학교가 보령 공립 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사립 옥성학교는 약 7년간

존속하다 1918년 3월 25일 폐교되었다.

이 밖에 1920년대에도 뜻있는 인사들이 사립학원을 설립하여 조선어독본, 초등역사, 산술, 천자문, 한자습자, 체조, 창가 등을 교육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1924년에는 미산 강두섭이 사립 용수유신학원을 세워 1928년까지, 1925년에 오천면 원산도에 김창민이 사숙용광학당을 설립



남포공립보통학교 입학 광고문(1910.1.27)

하여 1937년까지, 1929년에는 주산면 박승학이 사립용강학원을 세워 1942년까지 운영하였으며, 학생수는 대략 20명 내지 40명 정도로써 이들 학원이 폐교된 후 그 학생들은 각각 부근 보통학교에 편입학 하고 사립용강학원은 주산심상소학교에 편입되었다.

3. 일제강점기의 보령교육

1)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의 변천

(1) 식민지 교육의 추진기(1910~1919년)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과 동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으나, 교육 목적이 식민지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학교제도는 일제의 자의에 따라 정비되었고, 모든 학교의 관리층은 모두 일본인 교사가 맡았으며,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비판하는 교육기관은 폐교시키거나 탄압하였다.

이에 한성사범학교가 폐지되었으며, 교과서를 자기네 마음대로 개편하고 교육과정에서 일본어를 국어라 칭하고 우리말을 조선어라 하여 조선어 수업시간수를 대폭 축소시켰다.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 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조선 지배를 위한 일본의 초기 식민지교육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초등교육 기관인 보통학교에서부터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제가 마련되었다.

제1차 조선 교육령에 의한 학제도(1910~1920)

연령표준				
20		전문학교(3~4년)		
19				
18				
17	사범과(여) 1년			
16				
15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4년)	사범과(남)1년	간이실업학교 수입제한 학자없음
14			실업학교(2-3년)	
13	보통학교(4년) 1년 단축할 수 있음			
12				
11				
10				
9				
7~8				

교과과정 및 주당 수업 시간수(보통학교)

학년	과목	수	신	조선어 및 한문	국 어 (일본어)	산 수	이 과	창 체 가 조	계
1		1		6	10	6		3	26
2		1		6	10	6		3	26
3		1		6	10	6	2	3	28
4		1		6	10	6	2	3	28

(2) 식민지 교육의 본격화

일제의 강압적인 초기 식민지 교육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다소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강압적인 통치가 도리어 민족적 감정이 커졌음을 각성하고 문화통치라는 기만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교육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적 항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유화책에 불과할 뿐 기저에 깔린 교육 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선공학, 일선(日鮮) 융화 등의 기묘한 말을 내세워 다소나마 변화를 보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위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교사의 대검이 폐지되고, 신문법(新聞法)에 의하여 1920년 조선·동아일보가 발행되어 어느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야학이 늘어나 민족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그들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들 식민통치의 기본 노선에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었다.

교육의 목표는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도상의 결함과 교과 내용에 대한 보완으로써 민심의 진정과 식민 통치에 필요한 교육의 실리를 찾기 위하여, 1922년 2월 4일 칙령 19호로 조선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종래 4년의 고등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종래의 3년에서 4년 내지 5년으로,

그리고 실업학교도 종전에 보통학교 4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를 수용하여 2년 내지 3년 동안 수학하던 것을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시켰고, 사범교육은 종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을 수용하여 1년간의 과정을 이수케 하던 사범과를 폐지하고 전문적 교사 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처음으로 각 도에 2년 내지 3년의 특과가 있었으나, 후에 남자는 5년, 여자는 4년제로 하였고 경성사범학교나 경성여자 사범학교에는 연습과를 두었으며, 당시의 학제는 다음과 같다.

교과과정 주당 수업 시간수(보통학교)

학년	과목	수신	국어 (일어)	조선 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창가	체조	가사 재봉	계
1		1	10	5	5					3				24
2		1	12	5	5					3				26
3		1	12	3	6				1	1	3			27
4		1	12	3	6			2	1	1	3	2	2	33
5		1	9	2	4	2	2	2	2	1	3	4	4	36
6		1	9	2	4	2	2	2	2	1	3	4	4	36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한 학제도(1920-1945)

연령 표준										
23	대학 (4년)									
22										
21	예과 2년									
20										
19	전문학교 (2-3년)	여자전문학교 (2-3년)	연습과(2년) 서울				연습과(2년) 서울		실업학교 (3-5년)	
18	고등보통학교 (5년)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4-5년) (고등여학교)	보통학교 고등과 (2년)	특과 2-3년 지방	사범학교 5년	여자사범학교 (4년)			
17	실업보습학교 (1-2년) 후에 농업실수업농업전수학교									
16										
15	보통학교 (6년) 지방사정에 따라 4-5년으로 단축가능 (후에 심상소학교-국민학교로 개칭)									
14										
13										
12										
11										
10										
9										
8										
7										
6										

(3) 일제말기의 교육

1936년경부터 일제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더욱 노골화하고 적극적인 황국신민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침략적 야욕이 중일전쟁으로 표면화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전쟁의 양상이 세계대전으로 확산된 상황 아래 교육방침을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으로 정하고, 급기야는 창씨개명까지 단행하여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려 하였다. 한국인을 총동원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일에 주력하여 황국신민서사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케하고 한국어의 금지와 신사참배, 궁정요배, 목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정신 배양에 혈안이 되었다.

1938년 3월에는 개정교육령을 공포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학교는 고등여학교로 하고 전문학교를 2년, 대학을 4년으로 하였다.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을 발표하여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사범학교령, 전문학교령, 대학령 등이 모두 전시체제에 맞추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서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 조치령, 전시체제 정비에 관한 훈령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을 만들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과내용 등의 개정을 통하여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랄하였다.

초등교육기관으로 간이학교제도가 있었다. 1934년 농촌 간이학교에서 비롯되어 도시로 확산되었고, 이 간이학교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방 서당이나 재실 등을 빌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연한은 2년으로 남녀공학이었으나 여학생은 소수였으며, 교과목은 수신, 일어, 조선어, 산술, 직업, 창가, 체조 등이어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깊게 하고 일본어 교육에 주력하여 일본에 충성하는 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각 보통학교에도 부설되었으나 대천시내 학교에는 없었고, 인근 웅천에 황교, 주포에 관창·송학, 미산에 명덕, 남포에 월전, 오천에 효자·삼시 등에 있어서, 1941년경까지 운영되었고 학생 수는 매년 1학급 정도로서 교원은 1명씩 배치되었다.

2) 일제강점기의 보령교육

(1) 공립보통학교

1909년 9월 13일 보령 최초로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인가되었고, 일제가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이후 충남 지역에는 46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 보령 지역에는 주포공립보통학교, 오천공립보통학교, 화정공립보통학교(남포공립보통학교 계승), 대천공립보통학교 등 4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다.

① 한말 ~ 1910년대 보령지역 보통학교 일람

설립 학교명 현재 학교명	4년제개교년월일	6년제 실시	심상소학교개칭	비고
보령공립보통학교 주포초등학교	1911. 12. 05	1924. 03. 31	1938. 04. 01	1938년 주포신성공립심상학교로 개칭
남포공립보통학교 응천초등학교	1909. 09. 13	1926. 04. 01	1938. 04. 01	1917.11.15 화정 공립보통학교로 개명 1918.12.28 응천으로 이전
오천공립보통학교 오천초등학교	1913. 06. 06	1924. 04. 01	1938. 04. 01	*1931년-1938년에 수산보습과 설치
대천공립보통학교 대천초등학교	1918. 05. 27	1920. 12. 01	1938. 04. 01	

* 보통학교 6년 졸업 후 1년간 기술교육과정을 받았다. 1개 반 32명에 전용교사 1명이 어업기술을 교육하였는데, 주로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였고 소성리에 합숙소를 운영하였다.

② 1920년대 ~ 해방까지 개설된 학교 일람

설립 학교명 현재 학교명	4년제개교년월일	6년제 실시	심상소학교개칭	비고
주산공립보통학교 주산초등학교	1921. 05. 16	1924. 03. 31	1938. 04. 01	
청라공립보통학교 청라초등학교	1923. 05. 10	1927. 03. 31	1938. 04. 01	
남포공립보통학교 남포초등학교	1924. 04. 17	1938. 04. 01	1926. 04. 01	
미산공립보통학교 미산초등학교	1928. 05. 01	1938. 04. 01	1938. 04. 01	1996. 03. 01 보령댐 수몰로 폐교됨
천북공립보통학교 천북초등학교	1932. 06. 02	1939. 03. 25	1938. 04. 01	
청진공립보통학교 청소초등학교	1936. 05. 28	1939. 03. 27	1938. 04. 01	
광명공립보통학교 광명초등학교	1937. 05. 18	1941. 03. 25	1938. 04. 01	
청룡공립심상소학교 청룡초등학교	1940. 07. 24	1941. 04. 01		
옥계공립국민학교 옥계초등학교		1941. 07. 01		

1920년대 이후 해방까지 보령지역에 개설된 학교는 주산, 청라, 미산, 천북, 청소, 광명, 청룡, 옥계 등 8개교였으며,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공립보통학교를 공립심상소학교(公立尋常小學校)로 부르게 되었으며, 1941년에는 소학교령을 국민학교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1941년 4월부터는 공립국민학교로 부르다가 해방 이후 다시 국민학교로 부르게 되었고,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2) 일본인 소학교

소학교는 일본인만 모든 특혜를 부여한 교육기관이었다. 1911년 7월에 주포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가 주포옥촌(玉村)공립 심상소학교, 보령공립해양심상소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대천에서는 1913년 10월 대천시 대천동 158-2 현재 대남초등학교 자리에 대천공립심상소학교가 위치하였으며 후에 대천청매공립심상소학교, 대천공립해양심상소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승격되어 고등과 2년을 설치하였다가 광복 후 폐교되었다. 당시 일본인 소학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교 명	설립년월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비 고
대 천 공 립 심 상 소 학교	1913. 10	88	3	3	보령시 대천동 158-2번지 현재의 대남초등학교자리로 후에 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승격되어 고등과 2년을 설립하였다.
대 천 청 해 공 립 심 상 소 학교		80	3	3	대천공립심상소학교가 교명 변경됨
대 천 공 립 해 양 심 상 소 학교	1924. 03				대천청해공립심상소학교가 교명 변경됨
주 포 공 립 심 상 소 학교	1911. 07	10	1	2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위치하였고, 주포옥촌공립심상소학교→보령공립해양심상소학교로 교명 변경되었다가 해방직후 폐교되었으며, 학교터는 현재 주택지로 변하였다.

(3) 사립학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1920년대에는 뜻있는 인사들이 사립학원을 설립하여 조선어독본, 천자문, 한자 학습, 체조, 창가 등을 교육하며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세워진 사립 학원은 다음과 같다.

학원명	위 치	개폐년월일	설립자	강사	학생수	비 고
사립용수유신학원	미산면 용수리	1924. 04. 01 1928. 03. 20	강두섭	강두섭	25	수학자 중 주산, 미산보통학교에 편입
사숙용광학당	오천면 원산도리	1925. 05. 01 1937. 05. 07	김창민	김창민	20	수학자 중 인근 광명보통학교에 편입
사립용강학원	주산면 야룡리 산조개	1929. 04. 01 1942. 03. 31	박성학	이상윤	40	현 야룡장로교회 자리. 수학자 중 인근 주산육성소학교에 편입

(4) 간이학교

간이학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 1934년 농촌간이학교에서 비롯되어 도시로 확산되었다. 간이학교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서당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업연한은 2년이었으며 남·녀 공학이었으나 여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간이학교의 교과로는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직업창가, 체조 등을 교육하여 직업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일본어 교육에 주력하여 일본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다. 보령에는 7개의 간이학교가 있었으며, 매년 학교별로 1-2개 학급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후 간이학교는 일제말기에 공립국민학교 분교장으로 흡수되었다. 당시에 보령지역에 세워진 간이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교 명	개설년월일	비 고
	분교장으로변경	
웅천공립보통학교부설 황교간이학교	1934. 04. 01 1943. 04. 01	1941년 웅천공립국민학교 황교간이학교 1944년 4월1일 웅천공립국민학교 황교분교장 1학급/교원 1명
주포공립보통학교부설 관산간이학교	1934. 04. 01	1학급/교원 1명, 1940년대초 폐교
미산공립보통학교부설 명덕간이학교	1935. 05. 31 1944. 04. 01	1941년 4월 1일 미산공립국민학교 명덕간이학교 1944년 4월1일 미산공립국민학교 명덕분교장 1학급/교원 1명
남포공립보통학교부설 월전간이학교	1936. 04. 24 1936. 04. 25	1941년 4월 1일 남포공립국민학교 월전간이학교 1943년 4월1일 남포공립국민학교 월전분교장 1학급/교원 1명
오천공립보통학교부설 효자간이학교	1938. 04. 01	1941년 3월 31일 오천공립심상소학교 효자간이학교 폐교 1941년 4월 1일 학생은 오천공립국민학교로 편입
주포신성공립심상소학교 부설송학간이학교	1938. 07. 14 1944. 04. 01	1941년 4월 1일 주포신성공립보통학교 송학간이학교 1944년 4월 1일 주포공립초등학교 송학분교장
광명공립국민학교부설 삼시간이학교	1941. 06. 15	1944년 4월 1일 광명공립초등학교 삼시분교장

(5) 중등교육기관

보령에는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야 중등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일제 말기에 지방에는 수업 연한 2년제의 농업 전수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보령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933년 4월 1일에 주산공립농업실수학교가 설립되었다가 1935년 6월 6일에는 실수학교 조직 변경으로 수업 연한 1년제로 바뀌고, 1942년 3월 1일에는 주산공립농업실수학교가 승격되어 수업 연한 2년의 주산공립여자전수학교로 변경되었으며, 해방 후 주산공립초급중학교, 주산중학교, 주산농업고등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4년 3월 1일에 설립 인가된 대천농업전수학교(2년제)는 1944년 5월 1일 개교하여 해방 후 대천공립초급중학교, 대천공립농업중학교(6년제)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대천공립농업고등학교, 대천실업고등학교, 대천종합고등학교, 대천고등학교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 명	위 치	인가년월일 개교년월일	수업 연한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주산공립농업실수학교	보령시 주산면	1933. 02. 07 1933. 04. 01	2	1	45	1
주산공립여자농업전수학교	보령시 주산면	1942.3.1 주산공립농업실수학교로 변경				
대천공립농업전수학교	보령시 명천동468-1	1944. 03. 01 1944. 05. 01	2	1	41	.

7. 광복 이후의 보령교육

1) 교육행정제도의 변천

(1) 미군정 시대의 교육

8.15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과거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치하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민주교육에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미군이 진주하면서 1945년 9월 11일에 주한미육군사령관 하지(J.R.Hodge) 중장은 우선 초등학교를 개학하고 잠정적으로 중등학교와 전문대학을 개교할 것을 밝히고, 특히 국어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편찬한다는 학교재개에 대한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45년 9월 24일을 기하여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개학을 지시하는 동시에 6세부터 12세 된 자는 모두 등록시키고 사립학교는 학무국 허가를 받는 대로 10월 1일부터 개교하도록 하였으며, 9월 8일에는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1945년 9월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계 대표 10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심의회가 조직되고, 각 분야에 걸쳐 교육의 주요한 문제들을 심의·결정하였는데 10개의 분과위원회별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교과서문제 등을 다루었다. 또 이 교육심의회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건국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하는 데 두었으며,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의 2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교육방법 등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에 기본정신을 두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주력하며 학교제도를 복선형으로부터 단선형으로 바꾸어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무행정의 정비에도 착수하여 내무부의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시켜 문교기구를 7국 21과로 확장·개편하였다. 각 시·도에서도 미군정실시 직후에는 교육행정을 내무국의 학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중앙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학무과가 학무국으로 승격되고 군에서는 내무과안에 학무계를 두어 군내의 교육을 관장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의 교육은 지방에서는 군수 밑의 내무과 소관이었으며, 교육 실무는 학무계에서 다루었다.

학교제도는 초등교육을 국민학교라 하고 수업연한 6년의 의무교육을 전제로 하였으며, 중등교육은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누어 종전에 중학교 수업연한 5년을 중·고 각 3년씩 6년으로 하고 대학의 예과나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중학교에는 실업중학교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은 대학입학 준비과정이 되고 실업교육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였다.

고등교육은 3년 과정의 전문학교제를 폐지하고 대학제로 일원화하여 대학을 4년제로 하였으며, 2년 과정의 고등학교제와 대학예과제(수업연한 2년)도 폐지하고 의과대학을 6년제로 하였다. 당시의 학제는 다음과 같다

미 군 정 시 대 의 학 제

연령				
24	대 학 원			
23	의 과 대 학 (6 년)		교원양성과 (사대)	
22			각 종 대 학 (4 년)	사 범 대 학 (2 년)
21				교원양성과(사범)2년
20				
19	중 학 교 또 는 실 업 중 학 교	고 급 중 학 교(3)	고급실업중학교(3년)	
18			사 범 학 교 (3 년)	
17		초 급 중 학 교 (3년)	초 급 중 학 교 초 급 실 업 중 학 교 (3 년)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유 치 원 2 년	

미군 정부의 일반명령 제4호에 의하여 대천시내의 국민학교는 1945년 9월 24일을 기해 일제히 개교하였으며, 중학교는 10월 1일부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무렵은 일인 교사가 물러간 직후여서 각급 학교의 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원하는 문제와 우리말로 된 교과서가 없어서 이의 해결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 20일에 발간한 우리말 국어독본과 1946년 2월에 발행된 중학교용 공민·국사·지리 등의 교과서가 광복 초기의 공백기에 귀중한 우리말 교과서로 활용 되었으며 기타의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를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의 정치 사회상은 좌우익의 사상대립 등 혼란이 있어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교원간·학생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학제개편 작업은 진행되어 9월 22일 다음 표와 같은 국민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확정하였다.

초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원 시수표

(1945. 9)

교과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민	민	2	2	2	2	2	2
국어	어	8	8	8	7	6	6
역사	사	-	-	-	-	2	2
지리	리	-	-	-	1	2	2
산수	수	6	6	7	5	5	5
이과	과	-	-	-	3	3	3
체육	조	4	4	5	3	3	3
음악	악	-	-	-	2	2	1
습자	자	-	-	1	1	1	2
도화·공작	화·공작	2	2	2	남3·여2 여3	남4·여3 여3	남4·여3 여3
요리·재봉	리·재봉	-	-	-	남3·여1	남3·여1	남3·여1
실과	과	-	-	-	-	-	-
계		22	22	25	30	33	33

이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은 개교를 서둘러 갑자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수정되었는데 중학교 4년제 이상은 남·녀별로 시간배당이 구분되었다.

중학교에 진학 못하는 아동들에게 의무교육과정인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폐지 하였으며, 중등학교도 국민학교와 같이 임시교과과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당시의 교과목 및 주당 시간 배정은 다음 표와 같다.

중등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1945. 9)

학년	교과	교과목															계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1	중 고 녀	2	7	3	4	4	-	-	5	3	1	1	1	-	1	32	
		2	7	3	3	3	2	2	4	2	2	1	1	-	-	33	
2	중 고 녀	2	7	3	4	4	-	-	5	3	1	1	1	-	1	32	
		2	7	3	3	3	2	3	4	2	2	-	-	1	-	32	
3	중 고 녀	2	6	4	4	5	-	-	5	3	2	-	1	-	2	34	
		2	6	3	2	4	4	3	4	2	2	-	1	1	1	35	
4	중 고 녀	2	5	4	4	5	-	-	5	3	2	-	-	-	3	33	
		2	5	3	2	4	4	4	4	2	2	-	1	1	1	36	

중학(남자중학), 고녀(고등여학교) : 여자중학교 계의 기준을 표시한 것임.

※ 일제의 5년제 중학이 2차대전 말부터 4년제로 단축 1946년까지 지속됨

이것은 중등학교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1947년에 다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와 교과내용면에서의 일제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출범한 광복초기의 교육이 교과서도 없고 자세한 교수요목도 없는 형편이어서 학교 나름, 교원 나름의 교육으로 한동안 시행된 것은 당시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194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제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어서 교과별 지도내용을 상세화한 교수요목이 제정되고 교과서를 편찬·배부하게 되는데 맨 처음 발간하여 분배한 책은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한 ‘한글첫걸음’이었으며, 이어서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국사교본’이 임시교재로 사용되었는데 과학·실업·산수(수학)등의 교과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의 각급 학교 교원들은 일제침략의 쓰라린 식민지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을 위한 본연의 교육을 되찾게 됐다는 감격과 보람으로 비록 교수기술은 서툴렀지만 아동과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과 정성은 대단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교재를 만들어 필경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지도교육에 성의를 다하였다.

(2) 정부수립과 교육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우리는 분단된 국토와 여러 가지 취약 조건 밑에서 국방·경제 등과 더불어 교육의 건설을 서둘러야 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 균등, 초등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법정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신생국가의 교육사업 중 먼저 서둘러야 했던 것은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었다.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법률 86호로 공포되었는데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된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법으로서 교육의 이념과 목적, 행정체제, 교육기관의 종류와 그 계통, 각 급 학교의 교육목적 및 목표 등을 규정하였다.

교육법 총칙은 국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14조로 구성되었다.

교육이념과 목적은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규정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제2조에서 교육방침을, 제3조 제7조 제11조에서 교육목적 구현을 위한 재정확립과 정비를 규정하였다. 제10조에서 초등 무상 의무교육 및 학령 초과자를 위한 공민교육을,

제12조에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을, 제13조에서 교원의 우대원칙을, 제14조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행정의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교육자치제 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법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운영 지침이 되고 1950년 3월 다시 교육법이 개정되어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6·3·3·4제의 학제가 확립되고 미군정시 학년 초를 9월 1일로 하던 것을 3월 1일로 고쳤으며 당시 학제는 다음 표와 같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의 학제

학력					연령
22					27
21	대학원				26
20					25
19	대				24
18	학				23
17	사범 대학				22
16					21
15					20
14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19
13	고 등 학 교				18
12			고 등 기술 학교		
11					17
10					16
9			특 수 학 교	고 등 공민 학교	15
8					14
7			기술 학교		
6					13
5					12
4					11
3			특 수 학 교	성인 방	10
2					9
1	국 민		학 교	공민 학교	8
2					7
1					6
2	유 치 원				5
1					4

문교정책은 일제치하에 유린된 민족자존과 긍지를 회복하는 일과 6.25의 경험으로 반공정신교육의 강화에 기반을 두었다. 초대 안호상 문교부 장관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반공정신을 확립하여 승공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신교육으로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주요시책으로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창설하고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학도호국단의 설립목적은 단체훈련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연마하여 학원 내에서의 좌익계열의 책동을 분쇄하며 또 민족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애국적 단결심을

함양한다는 데 있었다.

제2대 백낙준 장관은 6.25전쟁 반발로 인한 전시하 『교육특별조치법』을 제정, 전시하의 학교교육의 비상조치로 과학기술교육의 실시, 반공교육과 국가관의 확립,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국제교육의 실시, 국민체위를 향상시키는 체력교육의 실시에 주력하였다.

이후 각 장관들은 승공정신교육, 반공의식의 강화 및 사상통일, 민족정신의 함양, 교육의 질적 향상, 근검·절약하는 국민생활의 정착,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국민도의 교육의 진작, 과학기술교육 등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전란 이후의 절대빈곤과 사회질서의 혼란 때문에 가치관을 바로잡는 도덕교육의 진흥이 역대 장관의 한결같은 교육지표로 작용하였다.

1950년대의 보령의 교육은 8.15해방 후 밀어닥친 정치·사회적 혼란과 민족적 비극인 6.25동란과 수복 및 재건기의 시대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51년 2월에 문교부에서는 ‘전시하교육 특별조치요강’을 시달하여 모든 학교는 3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개교하였으나 교사와 교구는 훼손됐으며, 북한과 외지에서 피난 온 학생의 수용과 교과서의 공급난, 중등의 경우는 대천농고 등에서 학생들의 학도의용대 참여, 군 징집 등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많았으나 다행히 교원문제는 서울 등지에서 피난 온 교원자원으로 충당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도 교육은 문교부의 방침에 따라 전시교육으로서 멸공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건국과 국제집단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생활을 지도하는 데 두고 그 중점을 도의교육, 1인 1기 교육, 국방교육으로 하였다. 그리고 멸공 필승의 신념과 중등학교에서의 군사훈련교육 등을 강화하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였으며, 1953년 휴전이 성립된 후에는 전후복구를 위한 생산교육과 전쟁으로 혼란해진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도의교육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한편, 1951년엔 새로 개정, 공포된 교육법에 따라 그 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분리문제가 실행에 옮겨져 당시 6년제 중학교였던 대천농업중학교가 대천농업고등학교와 보령중학교(1953년에 대천중학교로 교명 변경)로 분리되고, 대천수산중학교는 대천수산고등학교와 대천중학교(1953년에 보령중학교로 교명 변경과 동시에 주포면으로 이전)로 나뉘었다.

1952년엔 군 교육구가 발족되어 역사적인 교육자치제가 실행에 옮겨졌으며,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업무를 관장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의 추진, 교원연수, 학교학사 운영의 지도 등 교육발전에 기여함이 컸다.

6·25사변의 상처도 아물어 사회가 안정되어 가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도농 간, 학교 간의 학력차가 심해지고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되어 학교마다 입시준비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 서울, 대전 등 대도시 명문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물론 대천중학교 입시경쟁도 심해서 입시준비 교육에 몰두하는가 하면 보령 관내의 고등학교 3개 교가 모두 실업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모두 외지로 빠지는 등 교육의 장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1960년대는 4.19학생혁명, 5.16군사정변으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개혁 의지로 점철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격변과 개혁의 시기라고 말한다. 4.19혁명의 여파로 보령 지역의 학원 역시 흥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질서를 배척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학원의 민주화 조치가 추진되어 학도호국단이 학생회 조직으로 바뀌고 교련의 중지, 두발의 자율화 등 이 지방교육에도 많은 변혁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개혁의 요구 속에서 혼란이 거듭되던 가운데 5.16정변을 맞게 되었다. 1961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군사정부는 조국근대화를 표방하고, 이 사회의 모든 구악과 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인간개조를 임무수행의 기본목표로 삼아 문교시책을 간첩침략의 분쇄, 인간개조, 빈곤타파, 문화혁신 등을 내세우고 대학정비와 입시개혁을 단행하여 그에 대한 실천요강과 실천방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도 이러한 4개 시책의 구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전한 교육풍토의 조성과 교육혁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향토학교 건설, 새로운 학습 방법과 매체의 도입으로 학력증진, 충무정신의 체득, 생산·기술 교육의 강화, 체육교육의 진흥, 의무교육과 도서·벽지교육의 강화, 사회교육의 진흥 등이었다.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에 중점이 두어지고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사회·국가윤리에 대한 이상적 인간상의 정립, 반공과 민주통일의 실현,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역사창조 교육의 실천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68년 중학교 입시경쟁의 과열을 막고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의 실현을 전제로 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가 발표되고 그 준비과정으로 중학교시설·설비 평준화 작업이 추진되어 시설·설비가 빈약한 중학교에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사립 중학교에서 시설의 보완을 명하였다.

1970년대는 국제적으로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제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등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이 단행되어 유신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커다란 정치적 체제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제3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기능은 정치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평가되고, 국가·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조되어 이 무렵의 교육중점은 새마을 교육의 추진과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에 두어졌다.

새마을 교육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민족중흥의 열기가 진 국민에게 확산됨에 따라서 농어촌의 개발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의 신생활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운동에 부응하여 군내의 각급 학교 교육체제를 새마을교육으로 전환하고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였다. 교육과정을 지역개발과 직결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하고, 학교는 지역의 개발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주민계도에 앞장섰으며, 새마을애향단을 조성하여 새마을 가꾸기에 직접 참여하고, 농업계학교인 주산농업고등학교와 대천농업고등학교에 상설 새마을학교를 부설하여 2박 3일 코스의 합숙훈련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였다.

국민정신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교육현장에 명시된 국민교육의 지표와 개인·사회·국가윤리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함께 민족주체 의식 확립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는 바 그 추진중점을 ‘내 고장과 내 가정의 뿌리 찾기, 전통윤리의 근본인 효를 바탕으로 한 충효의 정신 배양, 우리의 가정에절을 익혀 인보상조 미풍의 생활화, 나라 사랑의 실천행동을 배우고 행동화 한다’로 하였다.

1971년부터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가 실시되어 중학교 진학지망자는 누구나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천에는 학군제가 도입되어 남자의 경우, 대천중학교와 대명중학교에 대한 선교는 추첨에 의해 배정하고, 대천여자중학교는 학구제로 하여 오랫동안의 과제였던 중학교 입시경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1980년에 7·30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진조국의 창조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민의 자질 함양과 교육의 질적 고도화 및 교육의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는 바 교육개혁 4원칙을 전인교육의 촉진, 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에 두었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 교육시책은 국민정신교육의 행동화, 기초학력의 정착, 건전한 교육풍토의 조성, 교단지원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후 교육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에 목표를 두고 주체적인 자아의식 고취, 기초교육의 내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보건·체육교육의 강화, 존경과 신뢰받는 사도의 정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게 된 민주화, 자율화 바람에 의하여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에서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보다 나은 개인의 자아실현 전인교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3년 2월 25일 문민통치가 실현되고 윗물맑기운동과 문화교육 전 분야에 걸친 개혁정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대학자율화 방안의 허점으로 발생한 대학 입시부정 등 교육부조리를 척결하는 등 새로운 교육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3) 현행 학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방송통신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였고, 개방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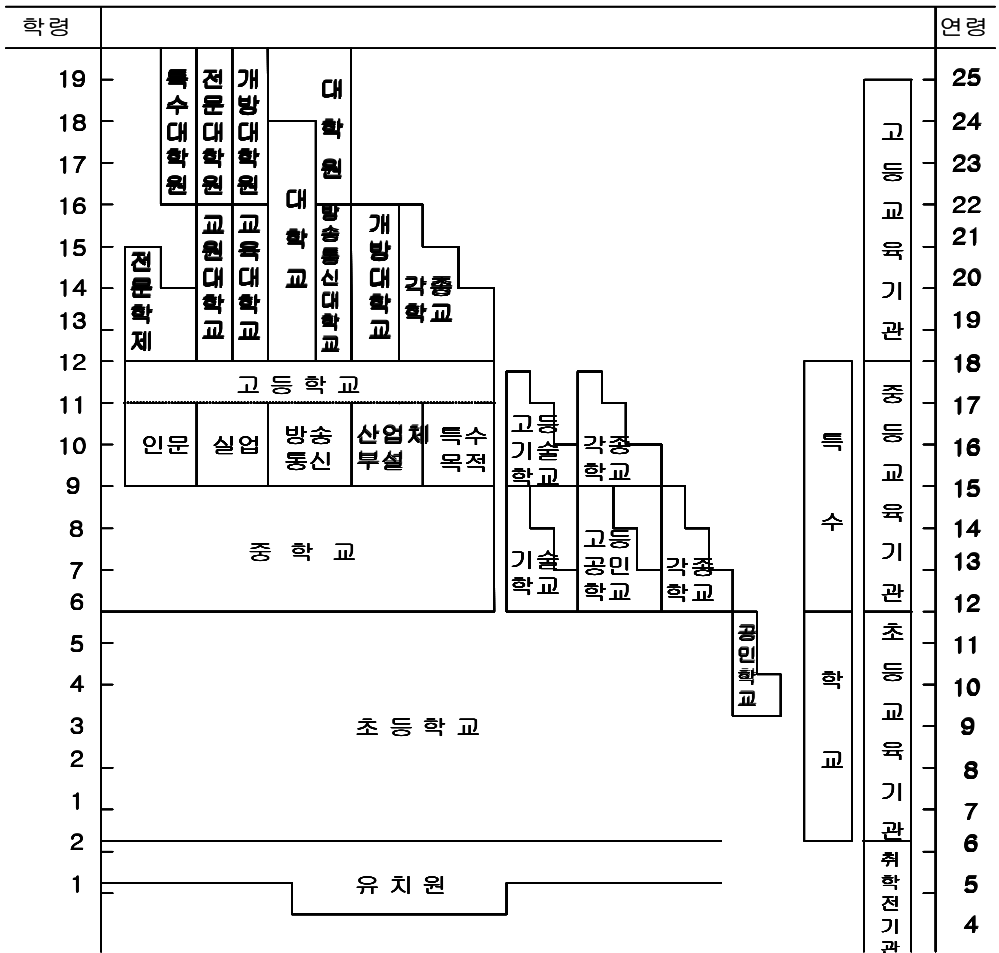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었는데, 1994년 11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공립 유치원이 설치되었고, 충남에서는 2000년 9월 1일에 천안일봉 유치원이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보령에서는 2006년 3월 1일 명천유치원이 설치되었다.

1941년 4월1일 이후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던 국민학교를 대신하여 1996년부터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중학교의 의무교육도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군 지역까지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학제개편방안은 기간 학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학제’는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대폭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신대학은 원격교육 및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모든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4년간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현행 학제를 개선하여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행의 학제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7조와 대통령령 제16479호에 근거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조기진급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각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2학년부터 4학년, 3학년부터 5학년,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규정이다. 조기졸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부터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조기졸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법령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조기진급 및 졸업자는 없었다.

2)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변천

(1) 교육과정의 변천

① 제1차 교육과정

제 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과 그 이듬해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로 각각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제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로 제정 · 공포한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3차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제정 상 처음으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뒤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 공포한 문교부령 제310호, 제325호, 제350호인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④ 제4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제정 · 고시한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⑤ 제5차 교육과정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초 교육의 강화,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된 문교부 고시 제87-9호(87. 6. 30 초등학교)와 제88-7호(88. 8. 3 고등학교)로 고시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다.

⑥ 제6차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 · 지방 ·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92. 6. 30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을 고시하였고, 92. 9. 30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5호)과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을 고시했으며, 92. 10. 30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의 고시를 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⑦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고시 제 1997-15 호로 고시하였다. 고시 후 2년여 적용 준비 과정을 거쳐 2000년 3월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별 ·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04년에는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의 전 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은 대통령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개정이 발의되고 교육과정의 기본골격도 제안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00년대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재량활동 등을 도입하였다.

적용상의 특징으로는 급속한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육과정의 적용과정에서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 철폐 및 연가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연수·홍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교육과정을 계기로 국가 교육과정의 존재와 성격, 그 중요성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형성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② 고 2, 3 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④ 재량 활동의 신설
-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⑥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⑦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의 배양 등을 개정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

(1997. 12. 30)

구분	학교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교 과	국 어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도 덕	수 학 120 136	34	34	34	34	68	68	34	34		
	사 회	바른 생활 60 68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70 (국사 68)		
	수 학	슬기로운 생활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		
	과 학	90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02		
	실 과	즐거운 생활 180 204	-	-	68	68		기술 · 가정				
	체 육	우리들은 1학년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		
	음 악	80	68	68	68	68	68	34	34	34		
	미 술		68	68	68	68	34	34	34	34		
	외국어 (영어)		34	34	68	68	102	102	136	136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	8단위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단위	

1.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2. 1 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3. 1 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 분, 중학교 45 분, 고등학교 50 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4. 11,12 학년의 특별 활동과 연간 수업 시간 수에 제시된 숫자는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할 단위 수이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보통교과 단위 배당 기준

(1997. 12. 30)

구 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과	국 어	국어(8)	국어생활(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도 덕	도덕(2)	시민윤리(4)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 회	사회(10) (국사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수 학	수학(8)	실용 수학(4)	수학 I (8), 수학 II (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수학(4)
	과 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 과학 I (4) 물리 II (6), 화학 II (6), 생물 II (6), 지구 과학 II (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이상)*
	외국어	영어(8)		영어 I (8), 영어 II (8), 영어회화(8), 영어 독해(8), 영작문(8)
			독일어 I (6), 프랑스어 I (6), 스페인어 I (6), 중국어 I (6), 일본어 I (6), 러시아어 I (6), 아랍어 I (6),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I (6), 스페인어 I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I (6), 아랍어 II (6),
	교양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수 단위		(56)	(24)이상	(112)이하
재량활동	(12)			
특별활동	(4)	(8)		
총 이수단위		(216)		

- () 안의 숫자는 단위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활동에 배당된 단위수 및 특별활동 4단위는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의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제1차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학교 급별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체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하나로 묶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10개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초·중·고를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 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체제를 갖추었다. 교육과정을 통합하게 된 이유는 학교 급별에 따른 교과별 학습 내용의 중복 제지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다.

(2) 중·고 입시제도의 변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1945년 이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입시 제도의 관리 주체와 전형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한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 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1945~1950	학교관리제	학교관리제
2	1951~1953	국가연합고사제	국가연합고사제
3	1954~1956	학교관리제	유시험, 무시험 병행제
4	1957~1961	무시험제, 연합출제제	신전형제, 필답 고사제, 연합출제제
5	1962~1963	국가고시제	국가 고시제
6	1964~1965	시도공동출제제	시도공동출제제
7	1966~1968(중) 1966~1973(고)	공동, 단독출제 병행제	공동, 단독출제 병행제
8	1969~현재(중) 1974~1988(고)	무시험 추점 배정제	고입 선발 고사제
9	1989~2000(고)	무시험 추점 배정제	연합 고사제, 선발 고사제 병행
10	2001~2003(고)	무시험 추점 배정제	내신제
11	2004~현재(고)	무시험 추점 배정제	내신제, 내신과 선발고사 병합제

여기서 ‘학교관리제’란 개별 학교가 자체에서 실시한 필답고사 성적과 국민학교의 내신서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여 입학생을 선발했던 제도를 말한다. ‘국가연합고사제’란 6·25사변으로 인하여 학교, 학생, 교원의 거주지가 유동적이어서 당시에 입시의 혼란을 막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균등한 수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였다. ‘국가고시제’란 5·16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입시제도로 그 특징은 지원 지역을 제한하고 전형방법은 필답고사와 체능검사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1993년 교육부는 시도 실정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충남교육청도 2000학년도까지 내신제와 선발고사를 병행 실시해 왔으나 교육부 시책에 맞추어 2001학년도는 희망 학교만 선발고사를 실시하다가 2002학년도에 전면 폐지하였다. 내신제는 중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듯하였으나 고등학교의 서열화와 저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으면 고학년에 가서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